‘기록유산’ 동아시아 고판화 역사 한눈에

개관 20주년 맞은 고판화박물관
9월 22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인쇄문화의 꽃’ 명품 특별전 개최
한국·중국 등 고판화 70여 점 전시

김내영 기자


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이 동학 태극기 목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동아시아 고판화의 역사와 흐름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인쇄문화의 꽃-동아시아 고판화 명품 특별전’을 개최한다.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은 오는 9월 22일 개막해 내년 1월 31일까지 열린다.

특별전에는 박물관이 1996년부터 수집해 소장하고 있는 6000여 고판화 가운데 가장 우수한 고서, 고판목, 대형 고판화 70여 점을 선별해 선보인다. 7건의 강원도 지정문화재가 모두 출품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한국, 중국, 일본, 티베트, 베트남 고판화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각 나라별 고판화의 특징과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부 삽화판화, 2부 예술판화, 3부 문양판화로 구성했다.

1부 삽화판화에서는 옥추보경(154호), 불설아미타경(152호) 등 강원도 지정문화재 7건부터 조선시대 최고 판화로 꼽히는 ‘오륜행실도’ 목판, 처음으로 고구마를 들여온 문익공 조엄(趙曮, 1719~1777)이 그려진 ‘조선통신사 행렬도’까지 고려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다양한 전적류가 전시된다. 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은 ‘조선통신사 행렬도’에 대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당시 통신정사(正使)로 파견된 조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글씨 아래에 먼저 간 정사들의 이름이 쓰여 있다”며 “이는 조선 통신사들의 외교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라고 평가했다.

또한 명나라 성화 13년(1477년) 황실 내부각본인 ‘불정심다라니경’을 비롯해 개자원화보, 목련경, 고씨화보, 당시화보, 시여화보 등 조선시대 화가들과 선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다양한 화보도 공개된다.

대형 종교판화가 전시된 2부 예술판화에서는 한국의 ‘치성광여래도’, 중국 금릉각경처가 판각한 ‘관음보살도’, 고려불화를 모본으로 판각한 일본의 ‘오백나한도’, 도요토미 히데요시 문장이 새겨진 ‘관경만다라 채색판화’가 소개된다. 새롭게 수집한 중국 소주 도화오 ‘복’자 문자도와 대형 년화도 ‘홍루몽’, 고흐가 사랑했던 히로시게 ‘동해도 53차 대형 병풍’, 티베트 ‘라싸전경도’ 등도 주목할 작품으로 꼽힌다.

3부는 문양판화에서는 옛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해왔던 아름다운 멋을 느낄 수 있는 조선시대 능화판과 조선 선비들이 사랑했던 청나라 시전지, 조선과 청나라 문자도 판화 등을 선보인다.

한 관장은 “이번 전시에서는 1000여 년 전부터 20세기 초까지 망라된 동아시아 고판화의 주요 흐름을 풀어내고자 했다”며 “개관 이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국내외에서 60여 차례 개최된 고판화박물관 소장품 특별전을 총 결산하는 전시회”라고 설명했다.


오륜행실도 목판화로

개관 20주년을 맞은 고판화박물관은 특별전과 함께 고판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9월 22~23일에는 중국 조우신혜 전 북경수도도서관 부관장, 천진미술대학 장엔문 교수, 싱리 인쇄박물관장, 일본 국문학연구자료관 부관장 이리쿠치 교수, 베트남미술대학 짱 타잉히엔 교수, 한국 고판화전문가 박도화 박사 등이 참여, 고판화박물관 소장품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또 9월 22일에는 전통·현대 판화 시연회가, 23일에는 전통 판화 인출 경연 대회가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고판화박물관이 소장한 동학 태극기 목판과 고려문집 제정집은 강원도문화재위원회를 통해 문화재청에서 보물 지정 심사를 진행 중이다. 또 올해 8월 17일 북경시 문물국에서 운영하는 엔산출판사와 한국고판화박물관장품집 8권 대형전집 발간 계약을 체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원지역 불교회화 ‘한자리’서 만난다

월정사 성보박물관 특별전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


삼척 영은사 석가여래회도

강원지역 불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월정사 성보박물관(관장 해운)은 ‘강원지역의 불교회화’ 특별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최한다.

강원 박물관 운영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오대산 월정사를 비롯해 삼척 신흥사, 삼척 영은사, 원주 구룡사, 횡성 봉복사, 영월 보덕사 등의 불화를 만나볼 수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최근 보존처리를 완료한 불화인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보물)’와 ‘삼척 영은사 석가여래회도(강원도 유형문화재)’다,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는 1727년 조성된 불화로 천장·지상·명부 세계를 관장하는 세 보살, 즉 천장·지지·지장보살의 설법장면이 담겨있다.

1811년 조성된 ‘삼척 영은사 석가여래회도’는 석가여래의 설법 장면이 그려진 대형 불화로 높이가 약 4m 가로길이는 약 3m에 이른다. 이렇게 큰 불화는 사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서 외부에 걸리는데, 주로 부처님오신날, 영산재, 수륙재 등 큰 법회나 의식에서 사용된다.

‘영월 보덕사 지장시왕도’는 1990년 8월 도난됐다가 2017년 9월에 환수된 불화다. 지옥중생을 구제하기로 서원한 지장보살과 사람이 죽어서 가는 10개의 지옥의 시왕을 비롯한 판관, 옥졸, 동자, 동녀가 그려졌다. 세부 형상의 표현이 눈이 세 개이거나, 말 머리를 한 옥졸 등의 존상이 재미있게 표현됐다.

이와 함께 사람이 죽어서 가는 10개의 지옥 중에서 다섯 번째 지옥을 관장하는 염라대왕과 권속들을 독립적으로 그린 ‘강릉 백운사 소장 현왕도’와 북두칠성을 신격화한 ‘영월 보덕사 칠성도’, 자유분방한 나한들의 모습이 표현된 ‘상원사 영산전 나한도’도 전시된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은 “옛 화승들이 그려내신 부처와 보살, 부처의 제자, 신중들을 만나보시고 선선한 가을, 청량산 오대산에서 불·보살의 미소를 마음에 담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오랜만에 돌아온 불교창작극 ‘이뭣꼬’

J&C뮤지컬컴퍼니 10월4~6일
동국대 본관 중강당서 공연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현대인의 성공과 좌절, 깨달음으로 표현한 창작연극 ‘이뭣꼬’가 오랜만에 무대에 오른다.

J&C코리아뮤지컬컴퍼니는 10월 4~6일 오후 3시·7시 30분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연극 ‘이뭣꼬’를 공연한다. 연극 ‘이뭣꼬’는 현대인들이 삶의 진정한 가치를 함께 고민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감독의 바람으로 제작됐다.

창작연극 ‘이뭣꼬’의 시나리오를 직접 쓰고 총연출한 정광진(J&C 코리아뮤지컬컴퍼니 대표) 감독은 “현대인들은 욕망의 노예가 돼 잡히지도 향유할 수도 없는 행복의 망상을 추구하며 극한 대립과 경쟁 속으로 내달리고 있다”면서 “주인공 무명 스님의 눈과 마음에 비춰 비이성적 현실 속에서 갈등하는 작금의 삶을 관객들이 다시 한번 반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070)8728-1215

신중일 기자

제32회 불교미술대전 공모전 수상작은

한국불교 미술 작가 발굴과 육성을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불교대전 공모전 수상작이 발표됐다.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대회장 진우·조계종 총무원장)는 제32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불미전에는 회화 93작품, 조각 18작품, 공예 34작품, 디지털아트 13작품 총 158작품이 출품돼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45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총 4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회화 부문 최학의 ‘42수 관세음보살도’, 조각 부문 주성진의 ‘성주괴공’, 공예 부문 윤기현의 ‘다기세트-차공양’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첫 시행한 디지털아트 부문에는 이성원의 ‘염원’이 선정됐다.

‘42수 관세음 보살도’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불화를 바탕으로 재해석하여 현대의 새로운 불화를 창조하고자 제작한 작품이며, 조각 부문 ‘성주괴공’은 물질이 생성되어 유지되고 소멸된 후 다시 공(空)인 상태로 변화하는 성주괴공(成住壞空)의 과정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제32회 불미전 공모전 미디어 아트 부문 최우수상작 ‘염원’. 미디어 아트 부문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회화 부문 최우수상에 ‘42수 관세음보살도’
조각 ‘성주괴공’·공예 ‘다기세트’ 최우수상
첫 시행된 디지털아트 부문 최우수상 ‘염원’
10월 25일 시상…전시 11월 2일까지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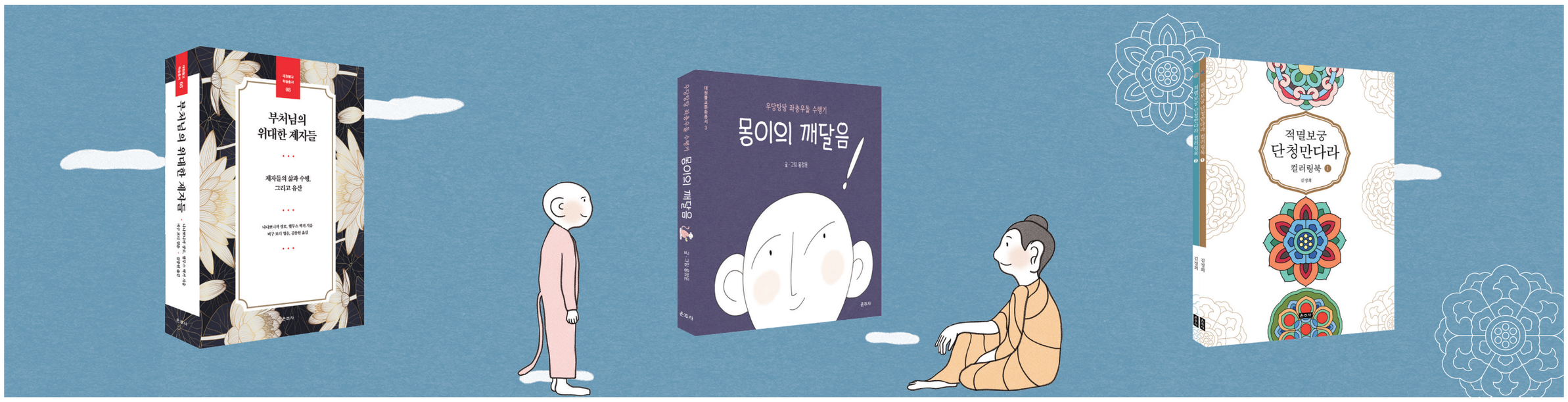
공예 부문 최우수상 ‘다기세트-차공양’은 극락세계 아미타불에게 차공양을 올리는 것을 상상하며 구현한 금은 다기세트 작품이다. 미디어 부문 최우수상작 ‘염원’은 오랜 세월 쓰러져 있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밝히는 마음 속 염원의 등불을 담은 3D 영상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우수상은 네 작품으로 △회화 부문 김민주의 ‘영산회상도’ △조각 부문 남진석의 ‘흐름’ △공예 부문 조정훈의 ‘석가모니 팔상성도 목판 및 목판인출본’ △디지털아트 부문 강혜정의 ‘신수월관음도’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8개 작품으로 △회화 부문: 행오 스님의 ‘묘법연화경 변상(1~7)’, 장미의 ‘수파관음도’ △조각 부문: 김대현의 ‘아미타삼존불’, 박재완의 ‘단비구법’ △공예 부문: 김정호의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 곽건찬의 ‘순동제 순은상감 관음도’가 선정됐다. 특선은 5개 작품이, 입선은 총 24개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한편,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은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그리고 신인작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해 1970년 시작된 불교계 최고 권위의 미술대회다. 올해는 디지털아트 부문을 신설해 회화, 조각, 공예 총 4개 부문 공모를 시행했다.

신중일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이 옳음을 증명하다!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

부처님 당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수행했으며, 어떻게 깨달음을 성취해 갔는지를, 가장 뛰어난 제자 24명의 삶과 수행을 통해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냐나뽀니까 장로, 헬무스 헥커 지음/김충현 옮김/신국판/728쪽/값 40,000원

수행 입문자를 위한 명상 카툰!

몽이의 깨달음

‘깨달음이란 도대체 뭐지?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걸까?’ 좌충우돌 몽이의 생각과 성찰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용정운 글, 그림/사륙배판 변형/236쪽/값 17,000원

‘5대 적멸보궁’의 단청을 그리다!

적멸보궁 단청만다라 컬러링북 1 2

통도사, 중대사자암, 봉정암, 법흥사, 정암사 등 5대 적멸보궁에 그려진 아름답고 성스러운 단청을 54컷의 일러스트로 만들어 누구나 색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정희 지음/국배판/각권 64쪽/각권 값 1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